## 신뢰보다 파격·도전…젊어지는 금융권

우리은행. 유재석서 걸그룹 블랙핑크로 KB. '방탄' 기용 이후 협업 사업도 인기 NH농협 정해인·KEB하나 김하온 신선

시중은행들이 배우, 아이돌, 힙합 가수 를 광고모델로 기용해 젊은 고객에게 어필 하고 있다. 과거 신뢰성에 부합하는 인물 을 선호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.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친숙한 이미지의 젊은 모델을 내세워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 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.

NH농협은행은 배우 정해인과 2년 간 브랜드 모델 계약을 맺었다. 최근 메이저 리거 류현진과 자체캐릭터 올리와 원이를 모델로 내세워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했던 만큼 정해인의 모델 발탁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. 트렌디한 대세 배우로 떠오른 정 해인을 통해 젊은 고객 확보에 박차를 가 한다는 게 NH농협은행 측 설명이다.

우리은행은 걸그룹 블랙핑크를 모델로 발탁했다. 신뢰감 있는 이미지의 유재석과 아이돌 출신 배우 박형식에 이어 3세대 대 표 걸그룹인 블랙핑크를 내세워 이미지 변 신에 나섰다. 글로벌 걸그룹으로 성장한 블랙핑크의 열정과 도전정신이 창립 120주년을 맞아 전 세계를 배경으로 성장 하고자 하는 우리은행 이미지와 부합하다 는 게 발탁 배경이다.

KB국민은행은 방탄소년단과의 광고모 델 계약을 연장했다. 지난해 2월 방탄소년 단을 광고모델로 기용한 직후 방탄소년단 이 빌보드 1위에 오르면서 큰 광고 효과를 거둔 바 있다. 광고 영상을 금융 앱 리브에 공개하고 협업 상품인 KB BTS 적금, KB 국민 BTS체크카드를 발급하는 등 방탄소



KB국민은행 모델 방탄소년단, KEB하나은행 모델 김하온, 이대훈 NH농협은행장과 배우 정해인(위부터 시계방향으로). 시중은행들이 젊은 광고 모델을 통해 미래 사진제공 I KB국민은행·KEB하나은행·NH농협은행 핵심고객인 2030세대를 공략하고 있다.

년단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있다.

KEB하나은행은 지난해 5월부터 엠넷 '고등래퍼2' 우승자 김하온을 광고모델로 두고 있다. 래퍼로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 의 삶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김하온의 인생스토리를 혁신 금융과 연결지었다.

이밖에도 신한은행은 모델인 워너원이 해체하면서 현재 광고 모델이 없는 상태 다. 젊은 고객을 겨냥한 모델 기용이 대세 인 만큼 새 모델 선정을 위해 고심 중인 것 으로 알려졌다.

이처럼 시중은행들이 젊은 모델을 발탁

하는 것은 미래 핵심고객인 2030세대 공략 은 물론 글로벌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 이라는 판단에서다. 또 빅데이터, 핀테크 등 디지털금융이 강화되면서 젊고 역동적 인 인물을 선호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.

정정욱 기자 jjay@donga.com

## 경제

17

2019년 2월 26일 화요일

*스로*초동아

IBK-이베이, 3.1절 100주년 기념 이벤트

IBK기업은행이 28일까지 이베이코리아와 함께 '3.1절 100주년 기념 이벤트'를 진행한 다. G마켓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간편결 제 서비스 스마일페이에 연결하고 해당 계 좌로 3만 원이상 결제한 선착순 3000명에게 1만 원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. 또 기업 은행의 모바일 지점 IBK큐브에서 기업은행 계좌를 처음 만들고 스마일페이에 계좌를 연결해 결제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3100명 에게 영화 '항거: 유관순 이야기' 관람권을 제공한다.

## '롯데카드 텔로 SKT' 카드 브랜드송 공개

롯데카드가 SK텔레콤이 기획하고 가수 신 승훈이 제작한 '롯데카드 텔로 SKT' 카드 브랜드송 포춘 텔러와 뮤직비디오를 공개했 다. 롯데카드 라이프 앱, 롯데카드 홈페이 지, 유튜브 계정에서 무료 스트리밍 및 시청 이 가능하며, 블로그에서는 무료 음원 다운 로드가 가능하다. 3월31일까지 총 600명을 추첨해 에어팟, 포춘 텔러 한정판 CD, SK텔 레콤 음악플랫폼 플로 무료 스트리밍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.

## "은행권 금융결제망 핀테크기업도사용"

금융위, 하반기부터 인프라 혁신

록 하는 공동 결제시스템이 도입된다.

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

지주 회장 간담회를 열고 '금융결제 인프 송금을 처리하기 위한 국내 금융결제망은 은행권만 이용할 수 있었으며 자기계좌 기 반 업무만 가능했다. 금융결제망에 참가할 수 없는 핀테크 업체는 모든 은행과 제휴 를 맺어야 했고, 은행은 자기고객 대상으 올 하반기부터 은행권 금융결제망을 모 로만 결제나 송금이 가능했다. 하지만 모 든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 든 핀테크 결제사업자 및 은행으로 확대한 공동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면 은행 혹은 핀 테크 업체의 앱 하나만 있으면 모든 은행 결제망을 사용할 수 있다. 결제망 제공 기

관도 기존 16개 은행에 2개 인터넷전문은 라 혁신방안'을 발표했다. 그동안 결제나 행이 추가된다. 향후 저축은행이나 상호금 융권 등의 추가 참여도 검토할 방침이다.

> 은행권은 오픈뱅킹 이용료를 현재의 약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데 합의했다. 핀 테크업체들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데 공 감대를 이룬 결과다. 규모가 작은 스타트 업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방침이다. 은행 간 적용되는 이용 료는 은행 간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다.

은행권 결제망 전면개방으로 거래규모 될 것"이라고 했다.

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4시간 운영하는 실시간 장애대응 체계를 마련하 고 보안 수준도 높인다. 또 은행 결제망 개 방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전자금 용거래법을 개정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 련할 예정이다.

최종구 금융위원장은 "지키려고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잃을 수 있다. 스스로 개방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"며 "공동 결제시스 템을 전면 개방키로 한 것은 금융결제, 나 아가 핀테크 산업 전반에 게임 체인저가 정정욱 기자



